

시론



탁인석

광주문인협회 회장

한국작가들의 작품은 운문이든 산문이든 당연히 한글로 표현한다. 작가의 성향에 따라 저마다 자신의 언어를 풀어 개성대로 작품을 창작해 간다.

작가들은 한글로 작품을 쓰면서 돌맹이를 옥으로 바꾸었다고도 고백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기와 물은 생명 유자의 필수요건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들의 고마움을 잊고 살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필사적으로 갈구한다. 한글의 경우도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닐까. 그럼에도 우리는 고맷기 짝이 없는 한글을 물과 공기처럼 그저 존재할 뿐으로 생각하고 있다. 10월에 맞는 한글날을 하루를 쉬는 국경일쯤으로 생각할 뿐이다. 그럼에도 한글날만큼 흥통하고 자부심 넘치는 경축일이 또 있을까.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여 내세를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한글의 장점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다. 한국을 비하하는 나라마저도 한글의 우수성만은 너나없이 동의

한다. 한글이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라. 5천년 우리말을 한글이 아니면 어찌 표현할 수 있었을까. 만약 한글이 부재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화나 경제나 사회의 제반 현상이 어느 만큼 가능할 것인가. 짚어볼수록 한글은 우리의 고유성과 자존심을 담보한 최고의 문자로 손색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문자니까 그렇다치고 우리 밖의 사람들은 어떤가. 우선 세계의 문자 가운데 훈민정음만 제작한 사람과 반포일을 알며, 제자원리까지도 만방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의 문자이다. ‘한글’은 세종께서 제자 당시에 불인 이름이 아니고 1910년 초 주시경 선생 등이 ‘한’이란 크다는 의미를 담아 명명한 것이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라는 인식 위에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는 만능임을 지구촌의 언어학자들은 찬탄에 찬탄을 거듭하고 있다.

한자는 글자 수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그에 따른 한계 또한 열거할 수 있는 한계를 정도이다. 일본어는 자음과 모음마저 미분리 상태이며, 영어의 사용 영역은 그 문자의 광역성 만큼 한글과 견주어 비교되지 않는다. 외국인도 대학 이상의 학력이라면 1시간 안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다고 한다. 한글 자음의 기본은 ‘ㄱ, ㄴ, ㄷ, ㄱ, ㅇ’인데 ‘ㄱ’에다 획수를 더하면 ‘ㅋ, ㆁ’이

위대하다 한글이여!

된다. 그러니까 앞 글자 다섯 개의 자음만 알면 다음 글자의 사용능력 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있다. 복잡한 모음체계도 점(.) 하나에 작대기 두 개(ㅡ, 丨)로 조작을 끝낸다. 가장 간단한 것으로 가장 복잡한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글의 언어적 창조력은 휴대폰에서도 여지없이 그 괴력을 발휘한다. 자판에 한글을 모두 넣어도 자판이 남아돈다는 얘기다.

금년으로 제 8회째 개최되는 ‘세계한글작가대회’가 있다. 이 대회는 금년까지는 경주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9회째부터는 광주의 대회개최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국제펜광주지역위원회(이사장 박신영)를 중심으로 추진에 박자를 가한 덕분이다. 이 대회의 광주 개최는 메리트가 차고 넘친다. 문화도시 광주에서의 개최 필요성은 우리 말이 가장 우리말답게 사용되는 전라도라는 여건이 밀 받쳐져 있다. 여기에도 중요성을 더한 것은 광주가 AI의 도시라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광주를 말할 때 AI도시 광주가 먼저 나온다. AI와 한글은 이미 산업화의 구상을 전제하며 이와 관련하여 광주의 미래 또한 여기에 집약할 수 있다. ‘영원한 제국’으로 유명해진 이인화 소설가가 있다. 이화여대 재직 시에는 천재 소설가이자 스타교수였던 그가 우여곡절

로 학교를 떠나게 됐지만 그 후 4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야심차게 완성한 장편소설 ‘2061년’의 소재가 훈민정음이다. 이 작가는 현재 인공지능 AI에 매료되어 있고 작품은 1443년 창제된 훈민정음이 AI의 소리와 생각을 표기하는 유일의 문자이며 2061년 세계 공용문자가 된다는 설정이다.

인공지능 AI앞에서 로마자의 음성인식은 완벽한 무용지물이다. 이에 반해 한글의 언어가동력은 놀랄 만큼 빠르고 정확하다. 요컨대 순경을, 반지름 등 15세기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을 결합하면 약 400억 종의 분절음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 만물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한글 데이터로 전 세계의 인공지능은 그 모두를 한글화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또한 AI가 지성체가 되면 말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한글밖에 없다는 학자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AI도시 광주는 이제 바빠져야 한다. 여기에도 중요성을 더한 것은 광주가 AI의 도시라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광주를 말할 때 AI도시 광주가 먼저 나온다. AI와 한글은 이미 산업화의 구상을 전제하며 이와 관련하여 광주의 미래 또한 여기에 집약할 수 있다. ‘영원한 제국’으로 유명해진 이인화 소설가가 있다. 이화여대 재직 시에는 천재 소설가이자 스타교수였던 그가 우여곡절

社說

광주시 협상력 필요한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광주시가 마침내 근대산업 유산인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협상을 시작한다. 그동안 대단위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은 없다고 수차 강조했던 터여서 도시계획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공업 용지에서 상업·주거 용지로 변경되는 만큼 땅값 상승액 중 일정 부분을 공공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개발이 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소외된 여성근로자들의 애환이 서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보존의 원칙도 지켜야 한다. 현재 건축물은 모두 259동으로 1930년대 근대건축물 4동, 1950년대 22동, 1960년대 26동, 1970년대 30동, 1980년대 이후 203동 등이 남아있다. 시는 건축물과 지장물에 대한 기본현황 조사를 마쳤으며 자체 발전소는 역사성 등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장과 설비·기숙사 등 나머지 핵심 시설물에 대한선 협의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아울러 고층아파트나 레지던스 호텔, 주상복합 등을 배제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

를 이뤄야 할 것이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문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1년여 이상 숙고한 끝에 마련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 다음달 중 협의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도 “가치가 있는 건물은 역사·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이에 따라 개인(토지 소유자)이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은 수익 사업으로 보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광주시의 바람대로 개발방향이 결정될 지는 미지수다. 전방과 일신방직 부지를 인수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익에 집착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시장의 의지처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익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시민들은 앞으로 보다 밀도있는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최대한의 시설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0만㎡의 도심 속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지역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개발계획 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전남 서부권 랜드마크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 다도해의 가치를 높이는 SOC 확충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500억원 이상 국·도·국지도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신안 추포·비금 등 6개 지구 1조6천104억원이 반영된 것이다. 이로써 천사·임자·추포대교 개통에 이어 자은·암태·팔금·안좌·장산·신의·하의·도초·비금까지 신안 9개 도서가 육로로 연결된다. 새로운 교통 대동맥으로 섬 주민 이동권 향상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 한 획을 그게 됐다. 추포·비금 연도교가 개통하면 목포에서 비금까지 해상으로 2시간 이상 걸렸던 통행시간이 육상 60분 이하로 줄어든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중 서부권 랜드마크인 다이아몬드 제도 완성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세계적인 섬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했다. 실제 2019년 천사대교 개통 이후 신안 관광객이 3배 이상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6천만명 시대를 지속하기 위한 전남 관광

사업 개발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추포·비금 연도교는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했으나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요소 비중이 상향되면서 적극적으로 통과됐다. 연륙·연도교 사업 자체는 섬 주민들의 현안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을 따질 수 밖에 없고 관문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도 인구 비례에 따른 기계적 계량보다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당위성을 내세워 정부를 설득해 나아갈 것이다.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는 서남해안 일대의 섬들로 둘러싸인 구도가 마치 다이아몬드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갖춘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곳으로 자동차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육지와 원활한 교류가 확대돼 개발 잠재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해양시대를 선도할 주역으로 자리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무르익는 즈음이다.

기고



김동구

중소상인살리키광주네트워킹위원장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소비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소비 비중의 증가 등으로 소비 유행 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역의 개인소득이 낮아 소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개인소득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하면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낮고 청년인구 비중이 높아 청년층의 소비와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소비가 본질 소재지로 집계됨에 따라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지역 역외소비가 높게 나타

나며, 업종별로는 농업용품 여행 보험 사무 통신기기 유통 자동차 가전 업종 순으로 역외소비가 많지만 본점 소재지로 집계되는 소비 비중이 높지 않은 업종 중에서는 농업용품 및 숙박이 역외소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주시의 대(준)규모점포 현황(2020년 12월31일 기준) 중 백화점 3곳을 포함 35개 중 약90% 이상 본사가 서울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관계로 역외 소비 통계로 잡히는 오류가 있어서 광주 유통업 업종별 역외 소비율 12.2%는 순수히 광주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지출한 소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이야기다.

그런데도 광주 업종별 역외 소비율을 보면 농업용품(43.9%), 여행(24.8%), 보험(17.4%), 사무 통신기기(16.9%), 숙박(16.2%), 유통업(12.2%), 자동차(11.4%), 가전(4.5%), 연료 판매(3.0%), 요식업소(0.1%) 순으로 광주지역 내 대기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부

분까지 역외 소비로 잡히는 통계로 광주시민이 쇼핑을 위해 다른 지역에 가서 소비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광주지역 역외 소비율 12.2%는 광주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역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중견기업들이 유통업에 진출하여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한다.

하지만 광주시 2014년 인구가 147만6천명, 2020년 154만명, 2021년 7월 144만2천명으로 지속적 감소 추이를 보여 5년 후 광주 인구는 130만명대 인구가 예상되며 특히 통계청의 향후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살펴보면 2022년 106만5천, 2027년 99만3천명, 2034년 88만1천명으로 예상돼 광주시는 무엇보다도 인구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부가가치가 낮은 유통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중심이 되는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미래형 IOT 산업, 2차전지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됨을 우려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광주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자료 제시를 한 단체나 유통 대기업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그 도시의 문화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주시가 복합쇼핑몰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옵니까? 쇼핑문화가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진 못한다.

광주엔 현재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쇼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대기업쇼핑몰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뿐이다. 복합쇼핑몰은 지역 상권에 코로나19보다 매우 나쁜 악성 바이러스가 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광주 유통업 역외소비지출 매우 낮은 수준

기후변화 속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

년 이후 7위를 기록했으며, 상대 습도는 평년보다 5.8% 높아 3위를 기록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의식주, 질병, 산업과 안보 등 다방면에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 소방 활동의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소방 본연의 업무인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비긴급출동인 잠금장치개방, 동물포획, 범죄제거, 안전조치, 급배수지원, 소방시설오작동 등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소방이 담당하는 영역이 확대됐다.

이 중 범죄제거, 급배수지원, 소방시설 오작동 출동은 이상기후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 소방시설 오작동 출동은 2015년 1천91건에서 2020년 2천262건으로 5년간 107%(1천171건) 증가했다.

많은 강수량과 높은 습도의 이상

기후는 화재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화재감지기 등의 소방시설 오작동에 영향을 미친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정작 화재 시 오작동으로 치부돼 버릴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주 소방에서는 지난해 오작동 출동 경감 TF팀 운영을 통한 경감대책으로 오작동 신고 확인 시 ▲119상황실 수보요원의 소방시설 작동요령 및 조치요령 안내를 통한 신고자의 현장조치 유도 ▲대처 매뉴얼 및 스티커 제작 배포 ▲연 5회 이상 오작동 출동 시 현장방문을 통한 관계인 교육 등 소방시설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또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기술지원단을 운영, 다수의 오인 출동 대상에 맞춤형 기술자문지

원을 추진하고, 화재재 경보 재발방지를 위한 주요 대상의 간부담당제 등 이력관리 및 컨설팅 진행과 자동 화재속보설비의 현행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 모두 관계인들의 관심과 협조가 함께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동주공제(同舟共濟)’란 말이 있다.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풍랑을 만나자 서로 좌우의 손과 같이 도왔다 뜻으로, 이해(利害)와 고난을 함께 한다는 의미다.

기후변화라는 풍랑을 만난 지금 모두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재난의 징후를 이해하고 안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한발 먼저 대비하고,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기후변화 속 소방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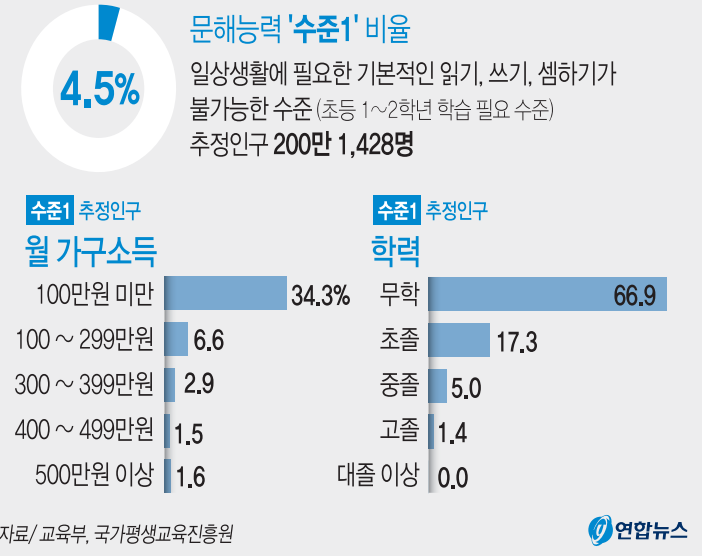
성인 200만명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못해

우리나라 성인 200만 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한국 성인의 기초 문해(文解) 능력 수준을 조사한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만429명 대상 조사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한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만429명 대상 조사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非文解) 성인(문해능력 수준 1)은 성인 전체 인구의 4.5%인 약 200만1천여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2017년 조사 결과(7.2%)보다 2.7%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 능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노년층에 거주할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요인 가운데 학력별, 월 가구소득별 문해 능력 격차가 가장 컸다.

조사 결과는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le.or.kr>)와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초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정지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예부 650-2065	지 역 특 집 부 650-2060 사 진 부 650-2080 사 설 실 650-2006 T V 본 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 고 문 의 650-2099 광 고 국 650-2072 경 영 지 원 국 650-2010 기 획 사 업 국 650-2079 업 무 국 650-2020	FAX 광 고 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